

“위기극복은 이타행으로”

인도불교문화협 그나나자갓총재 방한 특강

인도불교문화협회 총재 비단타 그나나자갓 대승장(68)과 사무총장 유니아트 교수 일행이 국제불교아카데미학회(회장 김광태) 초청으로 4월 24일 방한, 2박3일 동안 국제불교 아카데미, 수원 불영사 비구니스가대, 현성정사 등을 방문하고 한국과 인도의 불교교류를 돈독히 했다. 24일 나원동 국제불교아카데미학회에서 실시한 그나나자갓 대승장의 “21세기와 정신문화, 불교와 세계평화” 주제의 특강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주)

인류생활의 두 분야 즉 문명은 소유하는 것이고 문화는 존재하는 것이다. 문명은 일부 위대한 정점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지만 문화는 정도 이상으로 뒤떨어지고 있어 이것이 심각한 불화와 반목,

심리적 공황과 평화의 부재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절망적인 위기에서 인류는 절박하고 시급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아시아의 위대한 정신적 유산인 불교는 내면적인 평화와 지속적인 행복을 위한 낙관적인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깊은 자성과 수행없이 즉 내면적 자기변화없이 즉흥적인 대체방안이란 지극히 위험천만한 일이다. 또 수행자가 무소유만을 자랑해서도 안된다. 무소유와 함께 자각을 통한 중생구제, 즉 이타행을 해야 한다. 오늘의 문명이 가져온 위기는 바로 성직자와 지성인을 자처하는 지도자들이 먼 훗날을 생각하고 문명과 문화가 형성성을 잃지 않도록 계도하지 않고 안일하게 방관한 업보라 할 수 있다.



자비가 어느 정도의 지혜로 고취된다면 더욱 깊은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 어둠을 저주하는 대신 우리가 작은 촛불이라도 켜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자비는 영성과 지속적인 행복의 길위에 광명을 던지기 위한 하나의 위대한 발판임을 명심해야 한다. 21세기 다가올 문명의 위기를 대처하는 방안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생활지표인 카루나(자비) 메타(친절과 사랑) 무디타(이타적인 사랑) 우페카(정신적 초월) 등 영적인 정신을 개발해 불성을 찾는 일이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中 시조산·소림사에 용성비 건립

서울 대각사 조실 불심도 제1대 명인인 주나라 영왕(靈王)을 시작으로 제4대 명인 노자(老子), 제6대 명인 장자(莊子), 제9대 명인 이태백 등 중국 당대의 큰 인물로 전승되어 왔다. 도문스님은 또한 4월19일 하남성 숭산 소림사에서 용성스님 해동법맥 비명 제막식을 봉행했다(사진). 김재경 기자



마음 밝히는 컵연등

종이컵으로 만든 오색연등이 불타가 있다. 4월25일 휴일을 맞아 동성로 대구백화점앞 광장, 평소 시위나 기업체의 관측행사, 타종교인들의 합창이 벌어지는 이곳에 마음을 밝히는 연등 만들기 행사가 진행됐다. 한마음선원 청년불자들이 컵연등 시연회를 마련한 것.

나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들어보게 한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연인 주부 어린이 벽안의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정성껏 만든 연등을 소중히 들고가는 모습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맞는 환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윤호 기자

문화재위원 59명·전문위원 117명 위촉

2년간 문화재 조사 심의 문화관광부는 문화재정책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 위원(현 54명) 및 전문위원(현 113명)의 임기가 4월25일자로 끝남에 따라 앞으로 2년간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할 7개분과 문화재위원 59명과 전문위원 117명을 4월28일자로 위촉하였다. 다음은 문화재위원 59명의 명단이다.

〈제1분과〉 김동현 김은영 정영호 주남철 맹인재 김일진 신현식 윤복자 〈제2분과〉 고병익 강우방 김상목(법학박사) 안취준 전심문 정양모 김경숙 최승희 이동환 이수건 이만영 허영환 〈제3분과〉 이원순 한영우 김일진 정동오 최영희 김정배 정재훈 조유진 정옥자 김영자 〈제4분과〉 민길자 신찬근 박영규 정해조 좌대용 심우성 이성천 김선종 이종철 백대웅 서연호 허영일 김경숙 〈제5분과〉 안봉민 김윤식 윤일병 전성린 우한정 원종관 김수진 이인규 송준임 〈제6분과〉 한병삼 김동현 조유진 심봉근 최숙경 이기동 김병모 정영화 최몽룡 〈박물관분과〉 최만린 정양모 안취준 정상운 김윤식 김경규 최승희 김병모 이종철 송준임 주남철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영천 만불산 만불사 33m 대불상 제작 광경
영천 만불사 ☎(0563)335-0101

교차로

- 철마부대 3백여명에 수계**
현성 중앙승가대 총장(현성 정사 주지)은 4월 25일 중부 전선 철마부대 호국 철마사에서 수계법회를 열고 3백여명의 장병에게 수계하고 군정 신전력 강화와 관련한 법문 후 위문품을 전달했다.
- 통천사 낙성법회 증명법사**
법장 수덕사 주지는 4월25일 공문서 산기주 통천사(주지 동광) 낙성법회에서 증명법사로 참석, 통천사가 공문 불자 장병의 요람이 되어달라고 밝혔다.
- 정각원 불철 수계법회**
법산 동국대 정각원장 스님은 11일 오후 4시 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춘계 수계대법회를 개최한다. 춘계사는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 (02)2260-3015
- 결식아동 돕거노인에 쌀·성금**
법경 능인장사 포교원 주지는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2가 1동 사무소에서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 호국보탑 사적비 제막식**
상훈 승가사 주지는 9일 오전 11시 남북통일 기념 호국보탑 공덕비탑 사적비 건립 제막법회를 봉행한다. (02) 379-2996
- ‘21세기 불교음악’ 특강**
박범훈 국립국악관현악단장은 13일 오후 3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에서 ‘21세기 불교음악의 전망’을 주제로 부처님오신날 기념 특강을 한다.
- 중 동림사와 영불 결연**
김재일 전국영불만일회 공동회장은 중국 정토영불의 최초 발상지인 여산 동림사(방
- 장 전인스님**에서 한국과 중국간 영불결연식을 갖고 매년 문화 교류를 갖기 위해 2일 출국했다.
- 천안 소년교도소 위문**
정관수 대한불교회 회장은 4월 29일 천안소년교도소를 방문, 참선법회를 봉행하고 빵과 음식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 ‘언어와 문자의 고향’ 출판회**
김희수 후천서당원장(서예가)은 3일 동국대 문화관 그림에서 ‘언어와 문자의 고향’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불서엔 지혜 담겨 있어요”

애서가상 조병순 성암고서박물관장

한국애서가클럽(회장 김덕형)이 선정한 제8회 애서가상 수상자로 선정된 성암고서박물관장 조병순(77)씨. 그는 지난 60년대 초 불교계 분란과 한자사용 억제정책으로 인사동 등에 고서들이 무더기로 쏟아 나오던 시절부터 40년동안 고서인생을 살아왔다. 지금까지 모은 고서는 2만여권. 이중 21권이 국보(3점)와 보물(18점)로 지정됐다. 지난해에는 석가탑 무구정광대다라니경(751년)보다 40년 앞선 국내 최고의

“회원 화합 음성포교 전념”

불자가수회 새회장 남강수씨

“불자가수회 결성 이후 줄곧 뒷바라지를 해 오긴 했지만 내세울 것 없는 제가 회장이라는 감투를 쓰고나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불자가수들을 한데 묶어 불교홍포에 쓰임새 있는 모임이 되도록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4월28일 대한불자가수회 제6대 회장에 취임한 남강수(73세)회장. 불자가수회는 가입회원이 2백여 명이지만 방송개수와 무대개수의 정서적 견해 차이로 정작 활동회원은 20~30명에 불과한 실정. 이 때문에 남 회장은 “회원간 화합을 도모해 조작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9월~10월경 장충체육관에서 대규모 호도권찬치를 벌이는 등 불자가수회의 특성을 살려 대사회적인 포교활동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향도 밝혔다.



도필선 기자

“불법 전파에 도움됐으면”

불교TV에 14억 보시 이대덕심보살

“힘들게 모은 재산이지만 부도 위기에 처한 불교TV를 살리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20일 불교TV에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원도봉산에 있는 사가 14억원 상당의 준 농림지 7백여평을 기증한 이대덕심보살(81). 76년 도봉산 덕천사를 창건하기도 한 이 보살은 불교TV 개국때부터 영상 포교를 위해 일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왔으며 본원사주지 일봉스님의 권유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이번 보시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보따리 장사를 비롯 행사 등 어려운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닦치는 대로 일해 왔다는 이보살은 “남편의 유언대로 불교 발전을 위해 회향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1·2·3 포교운동 전개”

국방부 호국원광사 30돌 이현우법사

“포교는 특수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부처님의 명령이요 본부 말씀입니다.”

4월25일 창건 30주년을 맞은 국방부 호국원광사 이현우(43) 주지법사는 이날 기념법회를 열고 “불심의 1 사람이, 주변의 2 사람을, 달마다 3 차례씩 포교하는” 1·2·3 포교운동을 한 달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 법사는 법을 전하는 사람의 조건 다섯가지를 제안했다. △자신이 불심있는 사람이 되자.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듯 그를 연못에 태워 모셔야 한다. △그를 연못 안에 길러 불자로 출산해야 한다. △아기를 키우듯 불자를 양육해야 한다. △참불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거듭 보살펴야 한다는 것 등.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의 상사인 이 법사는 <국군 법요집>에 담긴 한글 천수심경을 비롯 새벽예배, 행선축원, 반야심경 등을 직접 특강하며, 반야심경을 독경소리를 비매품으로 제작해 장병불자 및 신도들에게 나눠 주기도 했다.



김재경 기자

대 불 사

영천 만불산 만불사 아미타불 높이 33m 국내 최대 크기의 부처님을 4월 25일 여법하게 조성 점안하였습니다. 아울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국의 각 사암에서 대불사를 계획하고 계신 대덕근스님께 대불사는 아무에게나 조성을 맡기시면 잘못하면 조성도 못하고 돈만 많이 허비하고 마는수가 허다함으로 전문가에게 불사를 맡기셔야합니다. 누구나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들 생각은 남을 시켜서 하면되겠지 돈만 많이주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불사비는 몇 배나 들어야 된단 말인지 ...

직접 대불을 전문으로 하는 자광조각원에서는 오랜 경험의 기술로 대작 불사의 설계와 시공을 직접하므로 아주 비용이 적게 들며 또 대불사는 설계상 중요한 부분이 많아 선불리 조성하면 원만 상호도 아니려니와 안전것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주 성곡사 입상 25m, 좌상27m, 미타사 입상 40m 등 경력과 경험이 많으므로 상담하시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석불, 목불, 대리석, 테라코타 등으로하며, 황금불, 동불, 석불의 형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광 불 교 조 각 원 구 소
대표 金光烈
충남 논산시 광석면 왕편리 611-15
T. 0461173313485
H. 01143613485